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 서울

숨어있던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대변신

마포구, 이면도로 등 주차공간 발굴 온힘

이희찬 기자

승인 2017.07.19 14:42



주택지역 이면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전수조사 통한 주차면 확충 모습

[내외일보] 이희찬 기자=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 평균 주차 1면당 약 7천만원의 예산이라는 많은 비용이 든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요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택 지역의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조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했으며 7월까지 총 200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구는 이밖에도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간은 한정돼 있고 마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마포가 사람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lhc@naewoeilbo.com

<저작권자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